

청결한 깔짚우사 바닥 및 퇴비사의 운영이 친환경적인 목장운영에 기본이 되어야



곽 정 훈
축산과학원 농업연구관(우수목장 선정위원)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젖소도입 시점을 보면 약 50여년 정도이며, 그 동안 사양관리, 번식 및 낙농관련 기자재 등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낙농기술 수준은 세계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낙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해온 낙농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 학계 및 대학 등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경제상황과 FTA 같은 무역 자유화협약 등의 외부 조건은 우리나라

낙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친환경 낙농업으로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2005년부터 회원농가들 중심으로 하여 ‘깨끗한목장 가꾸기 운동 선포(2005. 5)’를 기점으로 하여 깨끗한목장가꾸기 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목장 푸르게’ 캠페인을 시작으로 하여 ‘목장환경 개선 표준매뉴얼’을 제작·배부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목장 구성요소별로 컬러화보와 함께 환경개선과 관리방법, 목장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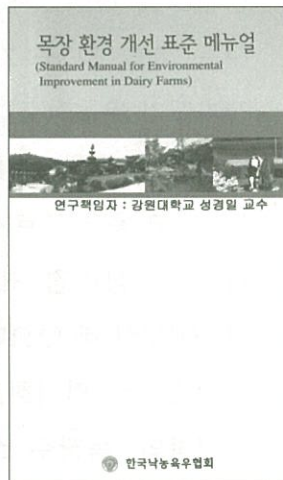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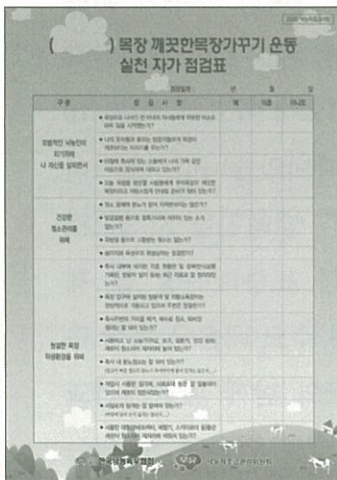
자가평가기준(안) 및 미국, 일본 등 선진사례를 소개해 농가 실정에 맞게 적용,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깨끗한목장 가꾸기 운동’은 낙농가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캠페인 전개 및 우수사례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전 낙농가가 목장 현장 조건에 적합한 운동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왔습니다.



현재의 ‘깨끗한목장 가꾸기 운동’은 친환경낙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우유생산, 젖소분뇨를 이용한 양질퇴비 생산 및 이를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성 증대 등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필자는 2006년도 깨끗한목장가꾸기 운동 제1차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각 도별 다양한 낙농농가의 현장을 다녀왔다. 운동 초기에는 낙농농가 뿐만 아니라 협회에서도 젖소목장 내외부에 꽃을 많이 심고 환경미화만 잘하는 것이 깨끗한 목장이라는 생각으로 출발하였지만, 현재에는 축사내외부, 착유실, 퇴비장 관리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심사대상 젖소농가의 특징은 현장체험을 함께하는 낙농가들이 많았으며, 이는 곧 우유를 생산하여 단순히 납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체험목장을 통한 추가소득을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즉, 낙농가에서 체험목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축사내 착유실, 깔짚우사 바닥 관리 및 젖소의 몸에 젖소분뇨가 오염되지 않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 심사를 다니면서 대다수의 낙농가들이 깔짚우사의 깔짚바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젖소농가에서 깔짚우사의 적정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현실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대표적인 예가 우사 내 송풍기의 설치방향이 달라서 우사 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퇴비사에 송풍기를 설치할 경우 퇴비사에서 침출수 및 악취 발생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농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깔짚우사 바닥을 항상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깔짚우사 바닥이 항상 건조되어 있으면, 젖소 몸 자체가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끗한목장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투자도 필요하지만 우사 내 송풍기 설치각도



를 조절하고 최소한 주 1회 이상 깔짚우사 바닥을 로타리 작업등을 실시하여 깔짚우사바닥이 항상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목장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목장에서 톱밥의 구입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므로 낙농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깔짚우사 바닥과 퇴비장은 목장주의 발걸음을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즉, 얼마나 목장주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며, 연중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깔짚우사 바닥 및 퇴비사의 운영이 친환경적인 목장운영에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젖소농가에서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되

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보전(가축분뇨 처리, 약취방지), 둘째, 자원순환(퇴·액비 농경지 환원), 셋째, 경관보전(환경개선 및 아름다운 농장)이 가능하게 되고, 여기에 가축건강(동물복지) 및 경영관리(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낙농업은 지역농촌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축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낙농가·생산자단체·연구·정책 및 관련업체 등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 서로 도와주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